

지금은 우리가 사랑할 때(롬 13:8-14)

1. 8-10절에서 사도 바울은 남(이웃)을 사랑해야 할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. 적어보세요.

1) 8절상:

2) 8절하-10절:

2. 11-14절에서 사도 바울은 ‘잠’과 ‘옷’이라는 두 비유로 사랑 실천이 시급함을 설명합니다.

1) 잠에서 깨라: “**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**”(11절)

2) 옷을 입으라: “**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**”(12절)

방탕/술취함: 나의 욕구 충족에 집중(남의 상황/감정에 무관심하거나 공감 부족)

음란/호색: 남을 나의 욕구/목표를 충족하는 수단으로 사용

다툼/시기: 자신에게 순응하지 않는 이들과 다투며, 남보다 늘 우위를 점하려고 시기/질투

“**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**”(14절):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비결!

3. 위 내용을 아래와 같이 가지런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.

밤이 깊고	낮이 가까웠으니
자다가	깰 때
어둠의 일 입기	빛의 갑옷 입기
방탕/술취함, 음란/호색, 다툼/시기	단정히 행하기
이웃에게 악을 행하기	이웃(남)을 사랑하기(빛 갹기)
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 도모	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
x	율법(말씀)을 다 이룸/완성

<나눔과 적용>

1. ‘이웃 사랑’은 모든 말씀을 지키는 길이며,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갹아야 할 빛입니다. **지금**이 우리가 ‘**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**’ 옷 입고 **이웃을/서로를 ‘골고루’ 사랑해야 할 때**입니다. 이미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현실에선 이웃/남을 사랑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.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?

2. 신앙생활이든 일상이든 ‘때’를 놓치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. 지금껏 살아오면서 중요한 때를 놓쳐 후회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(예: 식사, 배움, 치료, 화해, 용서, 회개, 기도, 예배, 순종, 섬김, 열심 등).